

卷 頭 辭

1946年 서울大學校 創立時 法科大學에서 講義를 시작하시어 半生을 本 法大에서 奉職해 오신 晴軒 金曾漢博士께서 今年 5月 3日(陰曆 3月 19日)로 回甲을 맞으신다. 先生께서는 解放直後の 混亂期에 스스로 荊棘의 길인 學問을 擇하시어 그간의 술한 激浪을 堪耐하시면서, 보다 나은(?) 길을 求하지 않으시고 初志一貫 默默地 의로운 研究活動에 專念해 오셨다.

돌이켜 보건대 開港과 함께 이 땅에 近代法이 뿌리내리기 시작한 지 어언 한 世紀, 韓國的 法體系 樹立에 대한 期待와 움직임이 어느 때보다 高潮되고 있는 이 때에 韓國民事法學界의 泰斗요 우리 法學界의 巨星이신 金博士님께서 回甲을 맞으시게 된 것은, 弟子요 後學인 우리들의 기쁨일 뿐만 아니라 韓國法學界 全體의 기쁨이 아닐 수 없으며, 人生 60 回甲이 삶의 막바지가 아니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座標設定의 契機가 된다는 意味에서 이렇게 記念論文集을 펴내게 되었다.

緻密하고 仁慈한 性品の 스승이요 謹嚴한 風貌를 지니신 學者로서 先生께서 이 나라 法學界에 貢獻하신 바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6·25戰亂의 渦中에서도 港都 釜山에서 韓國最初의 法律學辭典 發刊을 主導하셨고 先驅者的 叡智로 50年代初에 이미 Case-Method式 講義를 試圖하신 바 있고 民事模擬裁判을 最初로 試圖하셨으며, 現行民法 制定에 直接·間接으로 크게 關與하셨고, 精巧한 理論의 教科書를 著述하심으로써 韓國民法學의 體系를 定立하셨으며 現在도 講義는 물론 各種 學會等を 통하여 旺盛한 研究 活動을 하고 계시니, 先生의 學問의 깊이는 가히 測量할 길이 없다. 先生께서 教科書를 執筆하실 때에 때로는 단 몇줄의 글을 생각해 내시느라 머칠을 보내셨다 함은 우리 後學들에게 큰 感動을 주는 逸話인 동시에 先生의 學者的 面貌를 如實히 보여 주고 있거니와, 과연 先生께서는 우리의 師表이시다.

한편 特別裁判所, 文敎部 등에서 實務에 從事하실 때에도 熱과 誠을 다하여 맡은 바 任務를 遂行하셨으며 行政大學院長, 法科大學長 在職時에는 教育行政面에서도 탁월한 能力을 보이셨으니, 깊고 넓은 學問的 바탕에 더해진 先生의 폭넓은 活動은 우리 凡人의 想像을 超越한 一面을 보여 주고 있다 해도 지나침이 없으리라.

죽기 전에는 아무도 幸福하다 기리지 말라는 舊約의 말이 있지만 이미 先生의 수많은 弟子와 後學들이 各界各層에서 變轉하는 時流에 適應하여 끊임없는 精熱로 各自의 職分을 誠實히 遂行해 나가고 있음을 볼 때, 누라서 先生을 일컬어 幸福하다 하지 않으랴!

名聲은 큰 財產보다 낮고 尊敬은 銀과 金보다 낫다는 말이 實感나는 이 순간, 이제 先生

께서 人格的으로 耳順의 境地에 到達하시게 됨에 아울러 當身의 學問 또한 圓熟의 境地에 이르게 되니, 부디 앞으로 내내 健康하시고 지금까지 쌓아 온 人格의 經驗과 學問的 背景을 바탕으로 願하시는 모든 일을 뜻대로 이루어 나가시고, 특히 旺盛한 研究活動을 繼續하시어 이 나라 法學界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주시기를 비는 마음 懇切할 뿐이다.

未洽한 이 冊子를 奉呈함에 있어서 우리도 先生의 學問的 歷程과 가르침을 거울삼아 倍前의 努力과 意志로써 이 나라 法學成長에 一助할 것을 다짐하지만 우리들 努力의 結果가 先生의 燦然한 業積에 비하면 微弱할 수 밖에 없음을 생각할 때 어쩔 수 없이 悚懼스런 마음이 앞선다.

끝으로 이 冊이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기꺼이 玉稿를 許與해 주신 여러 教授님들의 功임을 밝히며, 아울러 이 冊의 出刊에 直·間接的으로 協助해 주신 여러분께도 感謝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1980年 5月

서울大學校 法學研究所

所長 金 致 善